서울 나들이 나선 수덕사 두 보물 聖寶

국립중앙박물관 수덕사 괘불 특별전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찰 수덕사에 전해지는 고려·조선시대의 귀중한 보물 성보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보물 '예산 수덕사 괘불'을 특별전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17번째로 방문한 보물 '예산 수덕사 괘불'은 높이 10m, 너비 7.4m, 무게 150kg이 넘는 대형 괘불이다. 괘불을 보관하는 함까지 포함하면 380kg이 넘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수덕사 스님들은 직접 법당 밖으로 괘불과 괘불함을 이운하며 서울 나들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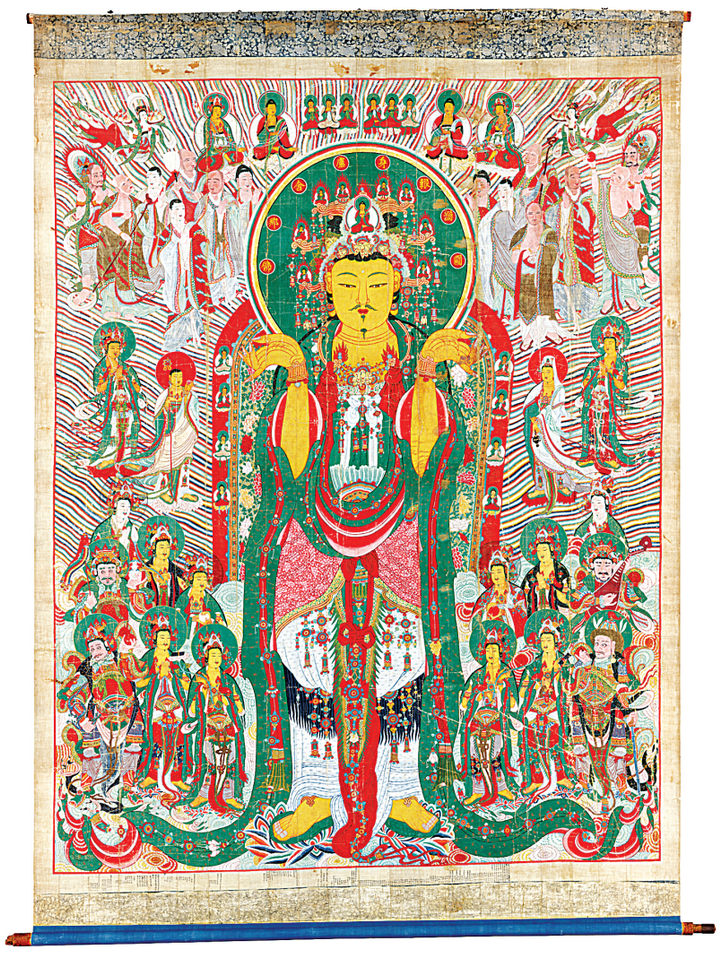
조선 1673년(현종14)에 조성된 이 괘불은 화면 가득하게 펼쳐진 빛이 돋보이는 괘불이다. 화면 중앙에는 오랜 수행으로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된 보신불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을 그렸다. 화려하게 장엄된 부처와 그를 중심으로 피어나는 신비로운 빛은 부처의 초월적인 힘을 보여준다.



사진은 보물 '수덕사 대웅전 목조연화대좌'

10월 16일까지 불교회화실에서
높이 10m에 달하는 대형 괘불
조선 僧匠 응열이 조성한 '명품'

'대웅전 목조연화 대좌' 첫 전시
현존 유일한 고려시대 연화대좌
고려·조선 불교미술 정점 확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수덕사 괘불탱'. 오는 10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서 만날 수 있다.

담백한 수행과 정진만 있을 것 같은 조선의 불교문화에는 이처럼 화려한 형상과 거대한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는 괘불이 있었다.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보살과 제자들, 수많은 신의 존재는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만큼이나 다채롭다.

이 괘불은 응열(應悅)을 비롯해 그림을 그리는 화승(畵僧) 네 명이 조성했다. 괘불을 그린 수화승 응열은 9년 전인 1664년에도 '공주 신원사 괘불'을 조성한 화승이다.

괘불은 일반 불화를 그리는 것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한 화승이 사찰의 초빙을 받아 괘불을 여러 점 조성했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단의 화기(畵記)에는 화승뿐만 아니라 불사(佛事)를 성공적으로 이끈 참여자 11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또한 수차례의 중수 기록은 이 괘불이 오랜 시간 민중에게 사랑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괘불전에는 보물 '수덕사 대웅전 목조연화대좌'도 함께 선보인다. 고려 14세기에 조성된 이 연화대좌는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고려시대 목조연화대좌로, 전시를 위해 처음으로 사찰 밖에 나왔다.

이번 전시에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조대좌의 내부 구조를 공개한다. 대좌 본체는 여러 나무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고, 연꽃잎을 따로 조각해 본체에 고정했다. 특히 연꽃잎을 꾸민 다양한 문양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고려시대 목조대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고려 후기의 불화나 보살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영락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모란, 작약, 나리를 비롯해 연꽃, 부들, 벚풀 등이 그려진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도 전시한다. 모사도에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맨드라미(鷄冠花)도 그려져 있다. 불전(佛殿)에 올리는 공양화를 그린 벽화로 고려의 원예전통과 고려인이 사랑한 꽃까지 만나볼 수 있다. 모사도 중 일부는 전시 기간 중에 교체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괘불전은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압도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고려 공예의 아름다움까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온 수덕사의 두 성보문화재와 함께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괘불전 개최 중에는 불교회화실의 괘불 미디어아트는 상영하지 않는다.

불교학계, 봄맞이 학술행사 '다채'

불교학연구회 5월 21일
'요가와 명상' 춘계대회
백련사 4월30일 세미나
반야불교문화연구원 등
인문 강좌 개최 잇달아

불교학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21일 오전 10시 '요가와 명상: 텍스트와 그 변용'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서 개최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들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변용'을 주제로 그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 김성철(금강대)은 〈구사론〉과 〈유가사지론〉 등의 주석서를, 한상희(경북대)는 빨리(Pali) 주석서를 통해 경전에 나타난 명상과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이영진 (경북대)과 차상엽(경북대)은 각각 산스크리트 사본과 티베트어 사본을 참조해 불교텍스트에 나타난 명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 혹은 전개되었는가를 다룬다.

2부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자 8명의 발표를 '요가와 명상'과 '자유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요가와 명상' 세션에서 조준호(동국대)는 고대인도 전적들의 조사를 통해 사띠와 사마타 위빠사나의 기원을 탐구하며, 여암 스님(동국대)은 코로나 19를 통해 촉발된 '비대면의 일상화 시대'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명상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양영순(한국외대)은 힌두 탄트리즘과 불교 탄트리즘, 자이나교와 초기불교 등의 문헌에 나타난 '죽음을 선취(先取)하는 요가와 명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자유주제' 세션은 동아시아 불교 관련 연구들이 소개된다. 정운 스님(중앙승가대)은 〈법화경〉에 나타난 수기작불(授記作佛)의 경우 어떻게 정립·전승됐는지를 살피며, 박정원 (이화여대)은 조선 초중기 유교의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능엄경〉의 핵심을 '계환해(戒環解)'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유불회통의 관점에서 명상을 다루는 폭넓은 관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학연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요가와 명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고전텍스트들에서 어떻게 다루고 변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진 백련사(주지 보각)에서는 사중에 전래되고 있는 전적을 연구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강진 백련사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 경내 만경루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련사 전래 전적 및 사상적 전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련사 전래의 전적 및 기록류들에 대한 연구- 〈호산록〉을 중심으로(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 권오덕박사) △〈정명국사후집〉의 고찰과 〈정명국사집〉의 복원(서강선 부산대 교수) △〈만덕사지〉와 심미(審美)(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고려 후기 백련사와 송 불교계 교류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를 중심으로(박용진 국민대 교수) △백련결사의 천태 수행론에 관한 재고찰(오지연 동국대 교수)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은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백련사에 전래·전승돼 온 전적, 사지, 기록물, 교류사, 그리고 전통수행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사료 및 문헌들을 분석·고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평론과 **가톨릭평론**은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를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평론과 가톨릭평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오강남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며 불교 관련해 곽병찬 前 한겨레신문 대기자가 발표를 진행한다. 개신교 관련해서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이, 가톨릭 관련은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장이 맡는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논단들도 잇달아 열린다.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4월 25일 오후 7시 봄학기 석학 강좌를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초청 강사로는 산스크리트어 필사본 연구 전문가인 저스틴 맥대니얼 팬실베니아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저스틴 맥대니얼 교수는 불교 연구, 물질문화 및 종교 연구 관련 논문과 서평을 100편 이상 발표했고, 20여 개국에서 강연했다. 맥대니얼 교수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 연구자들의 모임인 TLC Group의 회장직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했고, 현재까지도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알리고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지친 현대인들의 정서함양과 인문학 소양 고취를 위한 인문학특강 '산사에서 인문학을 본다'을 개최한다.

특강 주제는 △거짓 이야기 속의 진실 이야기-소설 '서유기'의 도술시합(강경구 동의대 교수, 5월14일) △욕망의 공간-서원과 고택(김영필 前 대구교대 연구교수, 5월21일) △장자, 삶의 치유와 자유(이성희 철학박사, 5월28일)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박찬국 서울대 교수, 6월4일)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현대사(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6월11일) △실존철학과 현대기술문명비판(김재철 경북대 교수, 6월18일) △인도 수행전통에서의 몸의 의미(이거룡 선문대 교수, 6월25일) △도교의 양생사상과 불로장생(김윤수 성균관 부관장, 7월2일)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배병삼 영산대 교수, 7월9일)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와 물에 대한 철학적 사유(이성혜 부산대 연구교수, 7월16일)이다.

특강은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총 10강)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의 장소는 통도사 반야암이다.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신성민·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